



2면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활력 전략 방안 모색

전주매일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음 9월 9일) 제33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철도산업 발전 지산학 협업

전북도, 코레일·원광대와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인프라 교류, 공동프로그램 개발·견학 등이 주내용

전북도가 코레일 원광대학교와 함께 철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지산학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는 지난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코레일 한문희 사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산업 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전북도가 지역 소멸의 극복 방안으로 지산학 협력에 기반을 둔 인재 양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 역시 그동안 도내 대학에 철도 관련 학과가 없었으나 2024년 원광대학교에 철도시스템공학부가 신설되는 점을 고려, 코레일, 원광대학교와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철도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정보·기술 협력 및 장비·시설 등 인프라 교류 및 지원 △인재양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공동 프로그램 개발 견학 직업체력 등 교육 운영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도는 코레일 임직원이 원광대학교에 진학 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코레일과의 촘촘한 지산학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철도 산업 분야는 속도와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특성상 미래 발전이 확실한 유망 수단으로 철도 인력 양성 후 철도 관련 유통, 물류 관련 기업과 산업체는 물론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철도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닌 미래 친환경 산업군에 속하는 분야다. 도내에도 열차를 생산하는 우수한 기업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있다”며 “원광대학교가 2024년에 도내 처음으로 철도시스템공학부가 신설하는 것은 우수한 인력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철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코레일은 물론 원광대와 함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난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도·코레일·원광대학교가 전북 철도산업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기인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사진 왼쪽부터)와 한문희 코레일 사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 서산서 렘피스킨병 발생... 전북도, 대응 나서

도내 소 사육농가에 발생정보 공유·농가 준수사항 전파

“진드기·모기 등 흡혈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연무소독해야”

전북도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렘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발생 정보를 소 사육농가에 마을방송과 단문자(SMS)발성을 통해 발생정보를 공유하고 농가 준수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렘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이미 2018년부터 우리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던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

한 주변국과 동남아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법정 1급 전염병이다.

렘피스킨병은 보균 흡혈곤충(침피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된 소는 4~14일의 잠복기간을 거쳐 고열, 눈물, 침흘림, 유량감감, 피부결절의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은 높지 않으나 발생국가는 대상교역제한 국가로 제한되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

우선 렘피스킨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진드기, 모기 등 흡혈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흡혈곤충 구제를 위해 연무소독과 함께 물 웅덩이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렘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렘피스킨병 방역상황을 심각 단계로 조정하고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행사 및 모임 금지와 아울러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전국의 소관련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내 26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소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소독과 함께 소독필증을 휴대해 줄 것과 사육하는 소가 고열, 식욕부진,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을 보이면 즉시 인근 읍면이나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고운 빛깔... 고창 모양성제 답성놀이



제50주년 고창모양성제 기간인 지난 21일, 모양성 성곽에서 답성놀이가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 돌을 이며 성을 밟고 있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새만금 관할권 갈등, 전북도가 조정해야”

문승우 도의원, 도정질문서 “군산·김제 등 모두가 상생 위해

양 지자체가 타협·협의를 나갈 수 있도록 중재안 제시해야”

김관영 도지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적극 조정 나설 것”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김제)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의 열쇠는 전북도만이 가지고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갈등조정 역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40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 이후 기반시설과 부지 조성이 완료될 때마다 군산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다툼이 벌어졌으며, 3~4호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갔고, 1~2호 방조제는 대법원을 넘어서 헌법소원까지 청구됐다.

문 의원은 “산업단지 1~2공구, 농생명용지 5공구, 관광레저용지 1지구, 환경생태용지, 산업단지, 썰머리 부지가 현재 구역이 결정된 8건 지구 중에서 단 2건 빼고 6건 모두가 행정안전

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도 남북도로, 동서도로, 신항만 등 총 4건이 관할권 다툼 중이라며 앞으로 준공될 많은 시설과 부지들 역시 그동안과 같이 분쟁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김 지사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모두가 사실상 진심으로 지금의 갈등상황을 벗어나 관할권 다툼 없는 새만금의 상생발전을 원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현재의 분쟁과 분열을 방지한다면 이것은 분명 전북 발전에 걸림돌이자 퇴보하는 행위, 즉 스스로 발등을 찢고 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문승우 의원은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군산과 김제 모두 한결



음씩 타협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를 원함 뿐이다”며 도의 역할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김제, 군산시장을 두 차례 만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서로 이미 감정적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첨예한 대립상태를 해소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앞으로 갈등해결조례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나서보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